

극으로 노래로 낭송으로... 詩에 젖는 밤



17일 공연을 앞두고 시극 연습에 한창인 광주재능시낭송협회원들. <광주재능시낭송협회 제공>

광주재능시낭송협 정기공연 17일 문예회관

시평역·다형의 정원 등 시극 무대로

퍼포먼스·음악 공연 등 행사 다채

시(詩)를 곁에 두고 읽는 이들이 많아졌다. 시를 통해 위안을 얻고,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2016년 시 열풍은 통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교보문고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 시집 판매량은 지난해에 비해 505.7%나 늘었다.

올로, 시를 읽는 이들이 많지만 '시 낭송'을 통해 시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23년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재능시낭송협회(회장 박진찬)가 대표적이다.

시 낭송, 시극, 시 퍼포먼스, 시노래 등 '시'와 관련된 다양한 형식의 공연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여기에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졌다.

광주재능시낭송협회가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정기공연 '시와 음악 그리고 감동'을 개최한다. 17일 오후 6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번 무대는 오랜 시간 시낭송 등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문화 향기를 전해왔던 광주재능시낭송협회가 시 낭송, 시극 등 단체의 활동을 처음으로 공연 형식을 통해 선보이는 행사다.

박진찬 회장이 이채 시인의 작품 '당신과 나의 한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를 낭송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번 공연에서 눈에 띄는 건 시극(詩劇)이다.

단순히 시 낭송에 그치지 않고 6~7분 분량의 극으로 꾸민 시극은 훨씬 진한 감동을 전한다.

평범한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지역 출신 광재구 시인의 '시평역에서'와 역시 광주를 대표하는 시인 김현승의 작품으로 꾸민 '다형의 정원',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시인 백석' 등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또 조마리아 여사의 '옥중 아들 안중근에게'도 시극으로 만들어져 관객들을 만난다. 이 작품은 협회 회원들이 지역 18개 중 고등학교를 방문, 재능 기부 형식으로 선보였던 작품이기도 하다.

시 퍼포먼스도 이어진다. 박두진의 '어서 너는 오나라', 박목월의 '청노루', '나그네', '윤사월', 문병란의 '바다가 내게'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주하주씨가 시노래 운

시평역에서

광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롬밤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땀처럼 맺은 좋고 있고
벗은 감기에 클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길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히 할망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길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슬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작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동주의 서시',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가'를 부른다.

"최근 들어 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낭송 문화도 활발해지고 있고요. 이번 공연에서는 시극은 일반 시낭송과 달리 여러 사람이 스토리에 맞춰 함께 꾸며가는 것이라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박진찬 회장)

다양한 음악공연도 마련돼 있다. 지역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전자 첼로 공연이 펼쳐지며 김효연씨가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 등 요들송을 선사한다.

그밖에 권현·김은혜·김혜진·오지영씨 등 광주시립 합창단원들로 구성된 '그레이트 레이디스 앙상블'이 '바람이 분다', 'I will follow' 등을 부른다.

광주재능시낭송협회는 시낭송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시낭송 공연과 재능목욕 시낭송회(매주 마지막주) 등을 진행 중이다. cafe.daum.net/kjmoodeung. 문의 010-3612-69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분단의 아픔... 그 목직한 울림

광일문학상 수상 윤삼현 작가 창작집 '백년을...' 펴내

의병을 일으켜 국난에 빠진 나라를 구한 장군을 상징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군은 역적 누명을 쓰고 참담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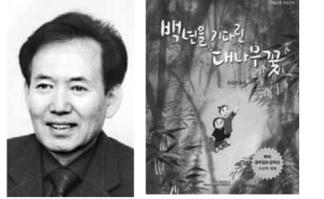
작가는 "대나무는 강직함과 김덕령 장군의 충의 정신을 의미한다"면서도 "작품은 100년 만에 꽃을 피우는 대나무의 굳건한 뿌리의식을 형상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 작가는 이번 작품집 '백년을 기다린 대나무'를 '철마와 소녀', '소록도의 꽃바람', '시골버스 3001호', '분무기 형사', '칠석날 밤', '과일집 아저씨와 곤죽박이' 등 역사와 분단 등 목직한 주제들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담겨 있다.

특히 표제작 '백년을 기다린 대나무'는 대나무를 의인화한 작품으로 역사의 식, 향토주의, 자연주의가 잘 어우러져 있다. 동화는 광주 충효골 김덕령 장군의 어린 시절을 모티브로 한다. 작품에서 '대나무'는 용맹하고 명민했던 어린시절부터

순재찬 평론가는 "역적 누명을 쓰고 참담하게 눈을 감은 이야기들을 통해 독자들은 바탕에 깔려있는 역사의식까지 느끼게 될 게 분명하다"고 평했다.

이밖에 작품집에는 2013년 제9회 광일문학상 수상 작품인 '철마와 소녀'도 수록돼 있다. 동화는 멈춰선 철마를 찾아오는 두루미를 관찰자로 내세워 분단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경원선을 달리는 철마의 기관사와 기찻길 옆 오두막에 사는 소녀의 우정을 매개로 분단의 현실을 조명한다.



또한 창작집에는 나병원을 둘러싼 환자들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소록도의 꽃바람'도 눈길을 끈다.

작가는 일제 강점기 때 소록도에 세워진 '나병원'을 매개로 단순한 환자 이야기 아닌 소록도를 우리 역사의 아픈 그늘로 끌어안아야 하는 현재의 이야기로 조명한다.

이렇듯 이번 작품집에는 역사, 분단, 자연, 향토 등 목직한 소재들을 형상화한 동화들이 담겨 있다. 한편 각 동화마다 어린 이문화진흥대상 미술부문 수상 작가인 이한중 화가의 작품이 실려 있어 보는 동화의 맛도 선사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랑의 온정 나누는 클래식 선율

광주여성필하모닉·피아니스트 김정원 협연 삼성전자 희망나눔

21일 문화전당 2극장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원(경희대 피아노학과 교수)씨가 협연 무대로 만난다.

2016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희망 나눔 행사가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2에서 열린다.

'베토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코리올란 서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한다.

빈국립음대, 프랑스 파리 고등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한 김씨는 보첸도르프 국제피아노콩쿠르 등에서 우승했으며 빈 심포니, 런던 심포니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 무대를 가졌다.

피날레 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교향곡 5번 '운명'이다.

이번 공연의 지휘는 박승유씨가 맡는



김정원

박승유

다.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 최연소 최우수 졸업(첼로), 빈국립음대 지휘과 학사와 석사 과정을 최우수 졸업한 박씨는 지난 2015년 런던 국제 지휘자 경연에서 1위를 수상했다. 현재 빈 국립음대 지휘과 최고연주자 과정에 재학중이며 비엔나 한인 여성합창단 상임지휘자도 맡고 있다.

본 공연에 앞서 오후 7시부터는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010-6478-1200. /김미은기자 mekim@

'올해 아름다운 작가상'

보성출신 송경동 시인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최원식)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아름다운 작가상'에 보성 출신 송경동 시인(49·사진)이 선정됐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아름다운 작가상은 작가회의 젊은작가포럼에서 젊은 작가들이 따르고자 하는 선배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상이다. 송 시인은 2001년 '내일을 여는 작가'와 '실천문학'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꿀잠', '사소한 물음에 답함',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등을 펴냈다. 제12회 천상병시문학상, 제29회 신동엽창작상을 수상했다.

한편 올해 새롭게 제정한 '내일의 한국작가상'에는 윤석정(40) 시인과 박소란(36) 시인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6일(오후 7시) 서울 마로니에공원 좋은 공연안내센터(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본 공연에 앞서 오후 7시부터는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010-6478-1200. /김미은기자 mekim@

당신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실버벨

Silver Bells

12월, 전국 극장 대개봉

철없는 아버지와 철든 아들의 좌충우돌 크리스마스가 온다!

● 관람문의 | 광주 CBS (062-376-8500)